

한중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 대조 분석*

이 선 희**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4. 미각의 전이 |
| II. 공감각적 전이 양상 대조 | 5. 후각의 전이 |
| 1. 시각의 전이 | III. 한중 감각적 전이체계 대조 |
| 2. 청각의 전이 | V. 나오며 |
| 3. 촉각의 전이 | |

I. 들어가기

인간이 자신의 감각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말을 ‘감각어’라 하며, 감각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형용사인데, 이들을 ‘감각형용사(sensorial adjective)’라 한다. 감각어에 대해서 정재운(1989), 손용주(1992)에서는 외부감각과 내부감각으로 구분하고, 외부감각을 다시 시각(광선, 색상, 공간), 청각(소리, 가락), 후각, 미각, 외피감각(촉각, 통각, 온도각)으로 나누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외부감각만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외피감각은 촉각으로 하기로 한다. 이는 흔히 인간의 오관(五官)에 해당하는 시각(vision), 청각(sound), 촉각(touch), 미각(taste), 후각(smell)과 일치하게 된다. 본고는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 재고(再考)의 후속 작업으로 한중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대조,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2010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啓明大學校 中國語文學科 助教授

다. 이를 위해 李穎(2010)의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에 대한 통계를 다시 검토하여 수정을 한 후, 이를 김종현(2001)의 한국어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과 대조해볼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감각’은 생리, 심리 현상이면서 동시에 언어, 문화 현상이다. 따라서 한중 두 언어는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어, 중국의 문화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공감각적 전이 양상 대조

1. 시각의 전이

먼저 중국어의 경우를 보자.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어에서 시각은 청각, 촉각, 미각, 후각으로 모두 전이가 되며, 그 중에서 청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활발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李穎(2010)의 조사결과와 일치하며, 김혜원(2006), 김찬화(2010), 허정영(2011)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살펴본 모든 선행연구에서 시각의 청각, 후각으로의 전이는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중국어에서 시각형용사는 청각과 후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뚜렷하다. 李穎(2010) 역시 후각보다 청각으로 전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중국어에서 시각은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순으로 전이가 나타나며 이는 李穎(2010)에서도 확인되었다.

- (1) a. 시각 → 청각: 聲音很粗, 很明亮的聲音
- b. 시각 → 후각: 濃厚的書卷氣
- c. 시각 → 미각: 很清的味道
- d. 시각 → 촉각: 皮膚很粗

한국어의 경우를 보자. 김중현(2001)에 따르면 한국어 시각에서 청각으로의 전이는 매우 활발한데, 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이다. 시각에서 후각으로의 전이는 정인수(1997)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김중현(2001:31)에서는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한국어에서 시각에서 미각, 촉각으로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2) a. 시각 → 청각: 맑은 소리, 희미한 소리, 맑은 소리, 빛나는 연주
- b. 시각 → 후각: 신선한 냄새, 누른 향기, 퍼런 곰팡내, 맑은 향기

이를 근거로 한중 시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어: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각
- 한국어: 시각 → 청각 > 후각

2. 청각의 전이

청각의 전이양상을 보면, 중국어의 경우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청각의 공감각적 전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한국어에서 ‘요란한 색’이 가능한 표현이지만, 중국어에는 같은 표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중국어에서 청각의 시각으로의 전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李穎(2010:49)과 졸고(2012)에서는, 다음 예를 청각형용사의 시각으로의 전이예로 볼 수 있지만, 그 예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았다.¹⁾ 이를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의 전이는 중국어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 (3) 청각 → 시각: 響亮的目光, 高亢的山坡地, 朗朗晴空

1) ‘高亢, 朗朗, 響亮’과 같은 형용사는 사전에서의 첫 번째 의미항목이 청각에 해당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이들을 청각형용사로 보았다.

한국어의 청각형용사는 어떨까? 김중현(2001:33)은 한국어도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청각의 시각으로의 전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역시 한국어도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의 전이는 찾을 수가 없다.

(4) 청각 → 시각: 요란한 색깔, 은은한 색깔, 조용한 어둠

즉 한중 두 언어에서 청각형용사는 시각으로만 전이가 발생하며, 그 예 또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청각 → 시각

한국어: 청각 → 시각

3. 촉각의 전이

중국어에서 촉각은 공감각적 전이가 매우 활발한 감각이다. 김혜원(2006), 허정영(2011), 李穎(2010), 졸고(2012)들의 연구에서 보듯이 모든 감각으로 전이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시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활발하며, 그 다음이 청각, 후각, 미각의 순이다.²⁾

(4) a. 촉각 → 시각: 溫和的表情, 面容很柔和, 眼神冰冷, 銳利的眼睛

b. 촉각 → 청각: 聲音尖銳, 沉重的響聲, 幹燥的聲音, 聲音很柔軟

c. 촉각 → 후각: 溫暖的氣味, 暖暖的味道

d. 촉각 → 미각: 柔和、馥鬱的香味, 口味重

한국어도 경우 중국어와 유사한데, 촉각이 시각과 청각으로 전이빈도는 매우 높은 반면, 후각과 미각으로의 전이는 드문 편이다. 김중현(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보자.

2) 李穎(2010)에 따르면, 중국어 촉각의 시각으로 전이에는 25, 청각으로의 전이에 17, 후각 7, 미각 2의 순이다.

- (5) a. 촉각 → 시각: 찬색, 부드러운 색, 시원한 색, 부드러운 빛, 따뜻한 색감, 추운 색.....
- b. 촉각 → 청각: 부드러운 목소리, 매끄러운 소리, 싸늘한 소리, 딱딱한 발음, 날카로운 소리.....
- c. 촉각 → 후각: 찬바람 내, 살포한 봄향기, 악취가 날카롭게 코를 찌른다.....
- d. 촉각 → 미각: 매끄러운 맛, 촉촉한 맛, 따뜻한 맛, 거친 맛, 시원한 북어국.....

한중 두 언어에서 촉각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영역으로 모두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이양상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의 순으로 전이빈도를 보이는데, 한국어는 청각, 시각, 미각, 후각의 순으로 차이가 난다.³⁾ 따라서 한중 촉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 촉각 →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한국어: 촉각 → 청각 > 시각 > 미각 > 후각

하지만, 두 언어 모두 시각, 청각으로의 전이가 미각, 후각으로의 전이보다 훨씬 활발하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다.

4. 미각의 전이

김찬화(2010:127)와 허정영(2011:35) 등 선행연구에서 중국어 미각형용사는 시각으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필자는 언어코퍼스를 통해 ‘苦’나 ‘甜’, ‘酸’ 등이 사람의 모습이나 소리, 냄새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중국어에서 미각은 시각과 청각, 후각

3) 김중현(2001:34)에 따르면, 한국어 촉각형용사는 청각으로 전이예가 32, 시각으로 전이예25, 미각9, 후각4의 순이다. 여기서는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으로의 전이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미각형용사가 촉각으로 전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脚脖子酸(발목이 시다)'처럼 '酸'이 신체 어와 결합한 경우이다.

- (4) a. 미각 → 시각: 苦澀的表情, 甜甜的娃娃臉, 酸溜溜的樣子
 b. 미각 → 청각: 甜言蜜語, 甜美的聲音, 酸溜溜的聲音, 聲音十分苦澀
 c. 미각 → 후각: 濃鬱的香甜味, 甜絲絲的儂味, 味道絲絲甘甜
 d. 미각 → 촉각: 腿酸

한국어의 경우를 보면, 김중현(2001)에서는 미각이 청각으로의 전이(12개 예)가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이 후각(6개 예)으로의 전이이며, 이 둘을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인수(1997)에서는 미각의 청각, 후각 외에 촉각으로의 전이도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그 예로 '매운 바람'을 들었다. 하지만 이 한 예를 제외하고는 촉각으로의 전이 예를 찾기 어려운 점은 한국어에서 미각의 촉각으로의 전이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 (5) a. 미각 → 청각: 텅텅한 소리, 달콤한 목소리, 쓴 소리, 신 소리, 감미로운 음성
 b. 미각 → 후각: 쓰디쓴 냄새, 매캐한 냄새, 달콤한 냄새
 c. 미각 → 촉각: 매운 바람

요컨대, 중국어의 미각형용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모든 감각으로 전이가 발생하나, 촉각으로의 전이는 상당히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李穎(2010)의 조사에 따르면, 시각으로의 전이에 5개, 청각, 후각으로의 전이가 각각 4개, 촉각으로의 전이예가 2개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의 전이가 의미를 둘 정도의 차이가 없기에 세 감각으로의 전이를 같은 순으로 보았다. 하지만 촉각으로의 전이보다는 확실히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의 미각형용사는 시각으로의 전이가 나타나지 않

으며, 청각과 후각으로의 전이는 비교적 활발하나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촉각으로의 전이는 매우 드물다.

중국어: 미각 → 시각, 청각, 후각 > 촉각

한국어: 미각 → 청각 > 후각 > 촉각

5. 후각의 전이

중국어 후각형용사의 시각으로의 전이는 상당히 드물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혔다. 가령 ‘臭臉’은 후각형용사 ‘臭’가 시각의 특성을 가진 명사 ‘臉’과 결합되어 후각의 시각적 전이의 예로 볼 수 있다. 또 ‘香甜’이 ‘자는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 이도 후각형용사의 시각적 전이로 볼 수 있겠다. 중국어에서는 ‘味(道)’는 미각의 ‘맛’인 동시에 후각 영역인 ‘냄새’의 의미도 가지므로 두 감각이 서로 통하여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후각의 청각으로의 전이 예도 매우 소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촉각으로의 전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李穎(2010)의 조사에서는 후각의 시각과 청각으로의 전이 예를 각각 한 개로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다음 5(c)를 미각으로의 전이예로 보아, 후각이 드물게 시각과 청각, 미각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본다.

- (5) a. 후각 → 시각: 臭臉, 睡得香甜
- b. 후각 → 청각: 血腥的歌聲
- c. 후각 → 미각: 血腥味

한국어의 경우, 후각의 청각으로의 전이는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각, 미각으로의 전이도 찾아볼 수 있다. 김중현(2001)의 조사에 따르면 청각으로의 전이가 6개로 가장 많고, 시각과 미각으로의 전이가 각각 4개로 같다. 시각으로의 전이는 ‘향기롭다’가 ‘눈빛’이나 ‘무지

개'처럼 시각적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되고 있고, '구수하다'가 '목소리'와 함께 사용된 청각으로의 전이에도 있다.

- (6) a. 후각 → 시각: 향기로운 눈빛, 향기로운 오색 무지개
- b. 후각 → 청각: 구수한 목소리, 피비린 얘기, 향기로운 말소리
- c. 후각 → 미각: 비린 맛, 고소한 맛

요컨대 한중 두 언어에서 후각형용사는 다른 감각으로의 전이가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며, 동일한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보이는데 두 언어 모두 후각은 시각, 청각, 미각으로 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국어: 후각 → 시각, 청각, 미각
- 한국어: 후각 → 청각 > 시각, 미각

이상으로 한중 두 언어의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다섯 가지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대조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감각별 전이양상을 보아보면 한중 두 언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 시각 → 청각 > 후각
 - 청각 → 시각
 - 촉각 → 청각 > 시각 > 미각 > 후각
 - 미각 → 청각 > 후각 > 촉각
 - 후각 → 청각 > 시각, 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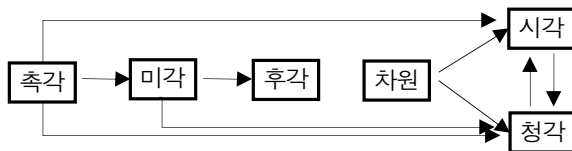
2) 중국어⁴⁾

4) 李穎(2010:11)에서는 사전류에서 수집한 예를 분석한 후, 중국어 감각별 전이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각
청각 → 시각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각
 청각 → 시각
 촉각 →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미각 → 시각, 청각, 후각 > 촉각
 후각 → 시각, 청각, 미각

III. 한중 공감각적 전이체계 대조

Williams(1976:463, 김중현, 2001에서 재인용)는 영어를 대상으로 감각 전이 양상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낸 바 있으며, 이러한 전이의 방향성은 영어 뿐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성립한다고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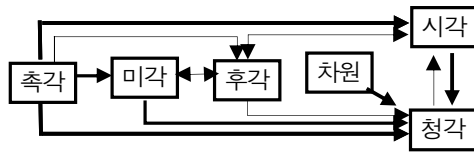
위에서 촉각은 가장 기본적인 공급자이고, 감각의 전이는 촉각에서 미각으로, 미각에서 다시 후각으로, 시각과 청각은 다른 쪽 끝에 위치한 수령자이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한중 감각형용사의 전이양상을 위의 도식을 참고하여, 도식화하여 대조해보기로 한다.

김중현(2001:36)은 Williams(1976)의 영어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 도식이 전이빈도를 나타내지 않고 평면적으로 모든 감각을 동일하게

촉각 →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미각 → 시각 > 청각 = 후각 > 촉각
 후각 → 시각 = 청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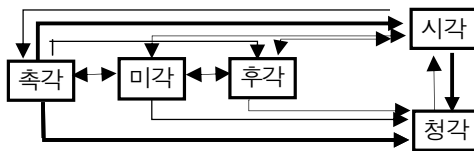
이는 본고의 양상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미각의 경우 시각, 청각, 후각으로의 전이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순서를 매기지 않았으며, 후각은 시각, 청각 외에 매우 드물게 미각으로도 전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는 점이 다르다.

나타내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어 감각형용상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그림 1> 한국어 공감각적 전이

<그림 1>에서 화살표는 감각의 전이가 발생하는 방향을 나타내며,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은 전이의 빈도가 높음을 뜻한다. 즉, 촉각에서 청각과 시각으로, 시각에서 청각으로, 차원에서 청각으로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다. 미각에서 청각, 촉각에서 미각으로의 전이도 비교적 활발하며, 나머지 전이는 그 빈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⁵⁾ 그러면 중국어의 상황은 어떨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전이도식을 참고삼아 중국어 공감각전 전이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중국어 공감각적 전이

중국어 도식에서는 촉각에서 시각, 청각으로의 전이와 시각에서 청각으로의 전이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한중 두 도식을 비교해보면, 촉각에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으로 모두 전이되는 양상은 같다. 또 청각이 시각으

5) 정인수(1997)에서는 ‘매운 바람’을 미각의 촉각으로의 전이로 보았으나, 김중현(2001:36)에서는 미각의 촉각으로의 전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로만 전이가 발생하는 점과 후각이 시각, 청각, 미각으로 전이가 발생하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하지만, 시각의 전이에서 한국어는 청각과 후각으로만 전이가 발생하는데 반해 중국어는 미각과 촉각으로도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미각의 경우 한국어에는 청각, 후각, 촉각으로만 전이가 발생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시각으로도 전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대략적인 감각전이 방향은 동일한데, 한중 두 언어 모두 촉각, 미각, 후각과 같은 기본적인 감각영역에서 시각과 청각의 보다 고차원적인 감각으로의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IV. 나오며

본고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다섯 가지 감각에 대해 한중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을 대조해 보았다. 결과,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에 대해서 두 언어는 대체로 유사하나 차이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형용사는 한국어에서 청각과 후각으로 전이가 발생하나, 중국어에서는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모든 감각영역으로 의미전이가 발생하며, 두 언어 모두 청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시각형용사의 전이양상은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⁶⁾

둘째, 청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는 두 언어 모두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두 언어에서 시각으로의 전이 예를 소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같다. 이는 청각의 의미전이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촉각형용사는 중국어에서 모든 감각으로 의미전이가 발생하며, 활

6) 국내 학자들은 촉각으로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드물지만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 청각으로의 전이양상에 대해서도 ‘밝다’가 소리와 결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고의 조사 결과 이음절어의 경우에 흔히 결합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발한 정도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의 순이다. 특히, 시각과 청각으로의 전이는 매우 활발함을 확인하였다. 한국어의 경우도 비슷한데, 촉각형용사가 청각, 시각, 미각, 후각의 순으로 전이가 활발하게 발생한다.

넷째, 미각형용사의 전이 역시 두 언어에서 비교적 활발히 발생한다. 하지만, 전이양상에 있어서는 두 언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어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의 순으로 전이가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청각, 후각, 촉각으로 전이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후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어에서 후각은 시각, 미각, 청각으로의 전이 예를 극소수 발견할 수 있을 뿐, 공감각적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감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후각형용사는 상대적으로 청각으로의 전이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고, 시각, 미각으로의 전이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參考文獻>

- 劉珍(2004), <“通感”與英漢感覺形容詞詞義轉移的對比分析>, 《重慶工學院學報》 第3期.
- 劉珍(2004), <感官形容詞詞義演變分析>, 《湛江海洋大學學報》 第2期.
- 李穎(2010), <通感的日漢比較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為論文.
- 김중현(2001), <국어 공감각 표현의 인지 언어학적 연구>, 《담화와 인지》 제8권 2호.
- 김혜원(2006), <중국어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특징>, 《중국어학 연구》 제38집.
- 김찬화(2010), 《韓·中 감각형용사 의미 구조》, 한국학술정보(주).
- 손용주(1992), <감각형용사의 분류체계>, 《대구어문논총》 통권10호.
- 이선희(2012), <중국어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 재고(再考)>, 《중국어문학》 제60집.

- 정인수(1997), <국어 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 연구>, 《현대문법연구》 11호.
정재윤(1989), 《우리말 감각어 연구》, 한신출판사.
허정영(2011), <한·중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대조연구>, 경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中文提要>

通感是一种常见的修辞手法，是古老的语言现象。人类具有共同的生理和心理基础，通感在很大程度上依赖于人类思维模式的共性，但同时也表现出民族文化特征。通感隐喻在本质上是五种感觉(听觉、视觉、嗅觉、味觉和触觉)之间的映射。这种映射有方向性的，也就是通常从低级感官形式映射到高级感官形式。并且这种映射不是随意的，而是植根于我们的身体特征。

本文在前人研究的基础上，从认知语言学的通感隐喻的角度，对汉语和韩语中感官形容词的通感式转移进行了系统的比较研究，并对其结果进行了分析和论述。本文通过研究中韩通感隐喻实例，发现中韩语通感的共同性远远大于它们的差异性。

주제어 : 韩中对比, 感官形容词, 五官, 通感, 词义转移, 认知

